특집 – 국립 경찰병원을 찾아서

경찰병원이 확 달라졌다!

– 퇴직 경찰·6.25참전 경찰 진료비 30~50% 감면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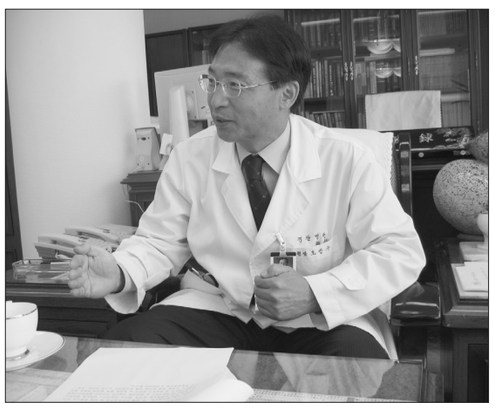
조민구 병원장, 고객만족 목표 설정

최근 경찰청과 경찰병원이 일반 경우회원들은 물론 6.25 참전 경우 회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2월 경우들에 대한 외래 진료비 무료 시행 이후부터 지난 해 12월말까지 12,641명의 경우들이 외래 진료를, 123명의 경우들이 입원진료를 했으며, 금년에도 지난 4월 말까지 6,032명의 경우들이 외래진료를, 64명의 경우들이 입원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었고, 이제는 年老해 병원을 자주 찾을 수 밖에 없는 警友들은 경찰병원의 이번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경우회원 진료비 감면혜택 추진과 더불어 良質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조민구 병원장을 만나 보았다.



조민구 병원장이 고객만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근 경찰병원이 진료비 감면 대상을 6.25 참전경찰관까지 확대하면서 입원진료비 감면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경찰병원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관에 대해 지난 해 2월 1일부터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사기진작,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7일 경찰청장께서 경우회 중앙회 정기총회석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원비도 30%까지 감면토록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50%로 감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근무 년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6.25 참전경찰 유공자에게도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경찰관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번 진료비 감면 혜택이 성사될 경우 경우회원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저희 병원에서는 올해 병원 경영혁신을 위한 3가지의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소방관 병원 추진 문제입니다. 이는 소방관들에게도 경찰관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응급화상센터를 비롯, 화상과, 흉부 외과, 신경과, 정신과를 신설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전 직원의 친절 서비스 체질화입니다.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만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융화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은 직원 융화를 위해서 직원 각자가 솔선수범함으로서 상호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외부 만족이라 할 수 있는 고객만족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고객마인드를 불어 넣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선진병원 도약을 위한 HIS(병원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장기적으로, 신규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확보를 함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는 한편, QI(의료서비스 질 향상) 강화 사업의 일환인 병원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업무의 질 향상을 통한 환자의 만족도 향상,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환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킴으로서 선진 경찰병원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 경찰병원은 기본적으로 전현직 경찰관, 그리고 전의경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 주변에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처럼 대형병원들이 최첨단 의료시설과 경영기법으로 무섭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병원의 설립취지 및 운영의 특이성을 감안해 대형병원에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다른 병원들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중인 PACS(영상획득 전달 시스템), OCS(처방전달 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등 HIS(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우회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 경우회원들은 모두가 고령입니다. 저칼로리의 식사를 주로 하시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량의 운동을 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경찰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검진을 받으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병원은

경찰관과 일반인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병원으로 변화

최신의료 장비 도입

경찰병원은 최신 암 조기진단 의료장비인 PET를 도입하여 퇴직 경찰관에 대하여는 25%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기타 특수시설 및 장비로는 자기공명영상장치, 전신컴퓨터촬영기, 유방촬영검사기,골다공측정기, 심장초음파진단기, 감마카메라, 전자내시경, 레이져 수술기 등이 있으며, 이들 장비를 이용한 MRI, CT, 핵의학 등의 특수검사와 화상클리닉, 물리치료클리닉, 성기능 장애클리닉, 혈액투석 등의 특수클리닉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소정의 지정진료비를 부담하는 지정진료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각종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최신 의료장비인 PET.

논스톱 종합건강검진센터 운영

이 종합검진센터는 종합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 신체검사 등을 다루고 있으며, 검진 대상 항목들을 모두 한 장소에 배치해 검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남자가 25만원, 여자가 26만원으로, 경찰가족이나 퇴직 경찰관은 추가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져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검진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한다. (☎ 02-3400 - 1365)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없이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

교통안전공단소식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범 국민대회 개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2005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가 최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대길 도로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허준영 경찰청장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교통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교통안전의식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교통사고 사망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질서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무사고 운전자에게 영년표시장 수여하고,「행복한 가정의 적신호 교통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선진교통문화」등 2편의 영상물을 상영는 한편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다짐하는 교통안전 결의문 채택,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포스터 전시회가 있었다.

이대길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그 동안의 교통안전은 규제와 교통지도 단속 등 타율적인 질서유지에 의존하여 왔으며, 특히 당국에서 역점을 둔 정지선지키기, 음주운전 단속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이젠 교통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자율적인 교통질서의 지킴이가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도 대회 격려사를 통해 "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선(線)지키기 운동」을 제안하면서『선(線)을「지켜야 할 선·이어야 할 선·그어야 할 선」등 세가지로 구분,「지켜야 할 선」을 정지선·차선·중앙선·속도제한선으로,「이어야 할 선」을 안전띠와 유아보호용장구로,「그어야 할 선」을 음주·무면허·신호위반 등 각종 위반행위로 들고 이렇게 선을 지킬 때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女警消息」

중앙경찰학교 여경 109명 배출

21세기 치안의 주역이 될 신임순경 제176기 여경 졸업식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충북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중앙경찰학교 대강당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가족, 친지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12월 5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109명의 이번 졸업생들은 6개월 동안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 및 강인한 체력을 연마했고 토론과 실습위주의 참여식 교육을 받았다.

대졸 97명, 전문대졸 10명 등 고학력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경기 23명, 서울 21명, 전남 10명, 부산 9명 등 전원이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돼 일선 치안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직원채용공고

KESA(http://www.ekesa.or.kr)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진흥원은 불법전기제품단속, 국제우수전기제품전시회, KS품목사후관리, PL상담센터등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민 전기제품안전홍보에 주력하는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제품안전의 새로운 시작을 선도할 KESA의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분 야	전 공	담 당 업 무	모집인원
불법전기 제품단속	경찰,검찰 근무경력자	○ 불법전기제품단속 ○ 시판품 및 e-biz조사	00 명

▣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 이상
○ 경찰,검찰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1969년 이후 출생자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전기,전자 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이력서 1통
○ 기타 자격증 사본

▣ 접수 방법
○ 제출기한 : 2005. 6. 1(수) ~ 6. 13(월)까지 (우편 및 e-mail은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주소 : (137-700)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소보원 2층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 e-mail : syc@ekesa.or.kr
○ 문의
- 전화 : 02-579-3291 (기획관리부 신영철 주임)

▣ 기타사항
○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함
○ 계약직 6개월 근무후, 근무평가 우수시 정규직 전환
○ 급여등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규정에 준함
○ 지원자격 전형방법등 상세사항 홈페이지 참고

KESA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전기제품안전의 새로운 시작"
137-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579_3291 / FAX : 02)578_3640 / http://www.ekesa.or.kr

審判臺

이한선 前치안감 해임취소 확정

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지난해 해임된 이한선 전 치안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 전 치안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데 이어 해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 조만간 복직될 예정이어서 이씨에 대한 '표적사정' 논란과 함께 경찰 인사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씨의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검과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올 1월 수사내용 사전 유출 및 주식투자 관련 비리 등 이유로 해임된 이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주식투자를 한 뒤 손실을 보전받은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 지휘비 편법사용은 종전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경찰청장 사전승인 없이 간부후보생 외출·외박 등을 늘린 데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강도상해 사건 직무유기 경찰관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조현욱 판사는 지난달 6일 강도상해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사건발생 사실을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K(34세)경사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유기한 점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처해야 하지만 십수년간 근무하면서 직무상 공적이 뛰어나 다수의 상을 받은 점, 악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강도상해 발생 현장에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강력반원 4명이 모두 함께 출동했지만 피고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혼자 기소됐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경사는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강도가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흉기로 찌르고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자 사건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증거품인 흉기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방치해 분실한 혐의로 기소됐다.